

석유제품 상승 둔화로 물가안정...

2012년 상승률 1.6%로 역대 2번째 최저 ... 2013년에는 크게 올라

2012년 물가가 2011년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딤에 따라 수요 압력이 약화된 측면이 컸으며, 2011년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던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의 상승세가 2012년 꺾인 것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보육 등 정부의 정책효과로 서비스 물가가 일부 내리기도 했다.

2011년 물가 급등세를 이끌었던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의 상승세가 2012년 둔화된 덕분에 연간 소비자물가가 2.2% 오르는데 그쳤다.

전국 단위로 물가 통계를 낸 1965년 이래 1999년 0.8%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며, 2012년 물가 상승률은 2006년과 같았으나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보면 2012년 2.21%, 2006년 2.24%로 간발의 차이로 역대 2번째 최저 상승률을 차지하게 됐다.

농산물과 석유제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6%로, 역시 역대 2번째로 낮았다.

2012년 물가가 기록상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체감 물가와 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며, 2011년 상승세를 주도했던 부문들의 2012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

농산물은 2012년 2차례의 태풍과 폭염·폭설 등 기상 이변의 영향으로 2012년 8.7% 올라 2011년 8.8%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수산물은 2011년 8.5%에서 2012년 2.6%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13.6%로 폭등세를 보였던 석유류의 물가 상승률도 2012년에는 3.7%로 낮아졌다.

공공서비스(0.5%), 개인서비스(1.1%) 등 서비스 부문의 물가 안정도 전체 물가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특히,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정부의 정책적 효과에 힘입어 보육시설 이용료(-27.9%), 학교급식비(-18.3%), 유치원비(-8.8%) 등이 2011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며, 통계청은 보육정책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0.34%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소비자물가 전망은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2.7%로 2012년 2.2%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안형준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무상보육 확대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물가는 수요보다 공급 측면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공요금의 산정기준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02>